

사순절 첫 번째 주일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1ST SUNDAY IN LENT

주후 2020년 3월 1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47장 “주여 우리 무리를”(새 75)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9 번 시편(Psalm) 23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권영수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히브리서(Hebrews) 4:1-11	배현미 집사
찬 양 Anthem	“비바람이 칠 때와”	찬양대
설 교 Sermon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Make Every Effort to Enter That Rest)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찬 송 Hymn	337 장 “인애하신 구세주여”(새 279)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323 장 “주께로 한 걸음씩”(새 53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셨지만,

우리는 삶의 염려와 불안한 미래와 일상의 분주함으로, 하나님의 뜻 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좇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더 무감각해졌고, 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합당하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 26:42, 요 13:3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한글개역 **히 4:11**)

“Let us, therefore, make every effort to enter that rest, so that no one will fall by following their example of disobedience.” (NIV **Hebrews 4:11**)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3/1 (주일)	3/2 (월)	3/3 (화)	3/4 (수)	3/5 (목)	3/6 (금)	3/7 (토)
	출13	출14	출15	출16	출17	출18	출19
본문	눅16	눅17	눅18	눅19	눅20	눅21	눅22
	욘31	욘32	욘33	욘34	욘35	욘36	욘37
	고후1	고후2	고후3	고후4	고후5	고후6	고후7

재/의/수/요/일/ 찬/양/집/회	토/요/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3/4 오후7:30)	“밝히 구별됨”(민 8:1-13)
토요 새벽기도회(3/7 오전6:30)	“뜻이 이루어지이다”(눅 11:1-4, 마6:9-13)

지난 주일(2/23) 말씀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히 3:7-19)

우리 몸의 작은 어느 한 부분이라도 굳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영적) 질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3장과 14장, 그리고 시편 95편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시편 95편에서 다윗이 내린 결론은 “마음을 강박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안식(즉, 구원)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금 이것을 우리의 경계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강박하게 되는 것입니까? 본문에서 우리의 마음이 강박하게 되는 원인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1)첫째는 그대로 방치한 죄의 유혹(13절) 때문이고, 2)둘째는 믿지 않으려는 악심(12절) 때문이며, (마지막) 3)셋째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18절)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처럼(참고, 겔 36:25-27),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겨지고,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해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